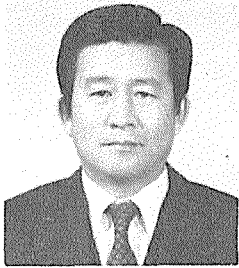


83年度 原油導入政策 方向



金 振 模

(動力資源部 · 原油課長)

I. 序 論

지난 1月23, 24日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의 Intercontinental Hotel 에서 열렸던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特別總會는 회의 開催前 34\$/B 基準油價의 방어 및 各國의 生産Quota 合意展望과는 달리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과 아프리카 産油國의 意見對立으로 아무런 共同聲明書 발표없이 決製 됨으로써 오히려 會議를 개최 不及한 것보다 더 못한 結果를 초래하여 現物油價는 急落하고, 메이저는 高價를 理由로 契約物量의 引受를 기피하고, 油價引下 展望으로 인한 在庫放出로 OPEC은 生産量이 최근 1500만B/D 수준으로 떨어져 60年 9月 創設後 최대의 危機에 직면 世界原油 市場은 混迷를 거듭하고 있으며, 每日 新聞에 보도되는 外信에 따르면, 油價 인하가 거의 目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최근 原油市場 狀況을 再照明해 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最近 原油市場 動向 및 展望

최근의 原油 市場은 82年 부터 先進國의 경기회복 지연, 消費節約 · 代替에너지 이용 확대에 의한 石油消費의 減少로 供給 現象을 시현하고 있으며 OPEC은 82年 3月 第63次 OPEC 會議에서의 生産上限線 합의로 약간 定常化 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一部 會員國의 財政難으로 인한 할인판매, Quota量의 미준수로 다시 原油市場이 완화 되었다가 82. 7. 10 第65次 오스트리아 빈 會議, 82年 12月 19日의 第66次 오스트리아 빈 會議, 83年 1月 23日의 OPEC 特別協議會에서의 各國의 利害관계 상충으로 인한 會議 決製로 OPEC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消費國은 油價引下 期待로 契約物量의 船積지연, 現物市場의 구매력 減少, 備蓄物量의 대대적 使用으로 OPEC은 안팎으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으며, 基準油價 34\$/B의 引下說이 파다한 實情이다.

1. 世界 石油需要의 減少

79년부터 시작된 2次 石油危機는 급격한 油價上昇을 招來, 世界經濟를 不況으로 몰아 넣었으며, 이에 따른 高油價로 강력한 消費節約, 에너지 利用效率 提高, 石油代替 에너지로의 轉

註1] GCC(페만협력위원회)는 사우디, 쿠웨이트, U. A. E., 카타르, 바레인, 오만의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바레인, 오만은 OPEC 會員國이 아님.

換, 國內 부존 에너지 資源의 開發 促進과 主要先進國의 脫石油 政策 推進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전체 에너지와 石油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다. 즉 GDP 1單位 生産에 消費되는 總에너지를 나타내는 에너지 集約도와 GDP 1單位 生産에 消費되는 石油을 나타내는 石油集約도가 <表-1>에서 보는 것 처럼 현저히 하락했으며, 특히 石油集約도의 격감이 에너지 集約도의 主要原因임을 알 수 있다.

(表-1) 에너지와 石油集約도 (81/79 年平均 변화표)

国 別	總에너지集約도	石油集約도
美 国	-9	-26
日 本	-14	-26
캐 나 다	-3	-12
프 랑 스	-2	-15
西 独	-7	-28
이 탈 리 아	-4	-8
英 国	-4	-21
OPEC 平均	-8	-24

2. 非OPEC의 輸出增大 계속

非OPEC은 需給이 핍박 시에는 OPEC보다 다소 높은 價格을 책정하고 공급과잉 時에는 OPEC 보다 다소 낮은 價格을 유지하면서 生産量을 증가시켜 不過 5-6年前에는 石油市場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보장될 없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OPEC보다 높은 生産量을 보이고 있다. 즉 非OPEC은 價格調整 體制 밖에 있으면서도 이익을 향수하고 수출物量을 꾸준히 增加시켜 나왔던 것이다.

石油市場이 供給過剩 일때는 非OPEC의 價格 형태는 OPEC에 壓力을 轉嫁, 북해→나이지리아→전아프리카→U. A. E→카타르 → 인도네시아→걸프만 産油圈까지 Transmission Chain을 形成하게 되며, 現在市場狀況이 이러한 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3. 在庫의 放出

1979년 부터 1982년에 나타난 世界石油 市場

의 不安定性을 苦起시킨 또 하나의 要因은 在庫의 움직임이다. 消費國들은 이란 위기 이후 供給不安定에 對應하기 위한 비축경쟁은 1979-81년의 油價 急騰의 主要 要因이 되었으며, 반대로 1981년 말에서 1982년 동안은 증대된 石油 在庫가 대량으로 방출됨으로써 공급과잉 現象을 더욱 심화하게 되었으며 이는 OPEC에 대한 油價引下 壓力을 加重시키고 있다.

4. 油價引下 壓力을 받고있는 OPEC

OPEC은 石油需要의 감소, 非OPEC의 低油價·高産油 政策, 在庫의 放出로 OPEC産原油 수요의 감소로 <表-2 參照> 밖에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OPEC 産油量은 <그림-1>과

(表-2) OPEC 原油의 需要減少 要因 (82年/79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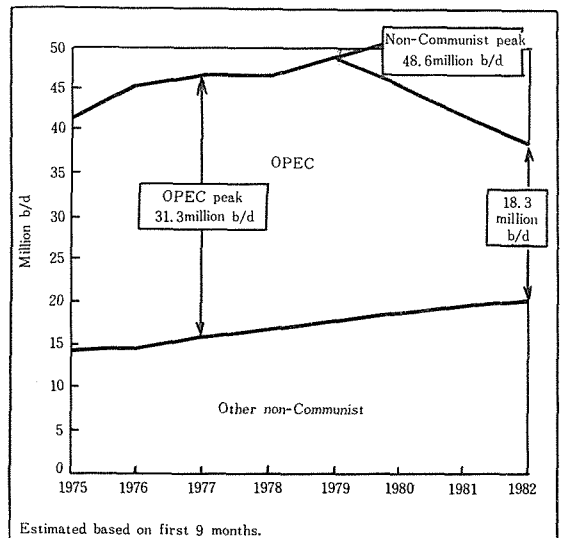
区 分	物量(百万B/D)	構成比(%)
世界에너지 需要減少 ¹⁾	3.5	29
非石油에너지源으로의 代替	3.0	25
非OPEC産油國로의 轉換 ²⁾	2.0	17
在庫 放出	3.5	29
合 計	12.0	100

(註) 1) 共産國 除外

2) 액화천연가스와 公산권의 純輸出 포함

(資料) Oil Price in 1983 : A Critical Year

<그림-1> 自由世界 原油生産現況



같이 격감 했다. 또한 OPEC 내부에서는 各國의 財政難으로 因한 이해관계 상충 및 사우디와 이란의 주도권 싸움으로 내분이 심화되어 있다. 즉 OPEC은 이러한 内外의 압력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OPEC은 2次 石油危機 이후 多兀化 되었던 油價를 81년 中半부터 시작된 공급과잉으로 81年10月29日의 이차 OPEC 총회에서 油價單一化 (基準油價34\$/B)에 合意하고 82년3월에는 OPEC 22年 사상 처음으로 價格뿐만 아니라 生産上限線 (1,750만B/D) 합의로 경제적인 의미의 카르텔로서 탈바꿈하나 이란,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一部産油國의 財政難으로 因한 쿼타량 초과 및 할인판매로 사우디 등 GCC 産油國의 生産量 감소로 油種間 differential 문제와 Quota 再조정을 위하여 82年12月 제66次 OPEC 總會에서 協議하였으나, 生産上限線을 1,850萬 B/D로 上向調整하는 데는 회의하나 各國別 Quota 量의 調整 실패로 異見對立을 노출시키게 된다. 會議直後 유종간 differential의 축소에 따른 상대적 高價 (表-3 參照)로 生産量이 감소로 전망했으나, 회의결과는 사우디의 양보로 生産량의 조정에는 합의했으나 유종간 격차에 대한 페르사만 산유국 (3.8\$/B)主張과 아프리카 산유국 (1.

5\$/B주장)의 의견 대립으로 다시 결렬하게 된다. 이에따라 現物市場 價格은 폭락하게 되고 油價引下 展望으로 消費國의 계약물량의 인수 기피, 재고방출로 OPEC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유가인하 가능성이 漸高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GCC 산유국인 쿠웨이트와 U. A. E. 가 公式價格보다 4\$/B이하로 現物市場에 直接하기 시작했다는 外信報道가 나오고 있으며, 公式價格의 인하가 임박 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OPEC會員國의 油價引下 合意說도 있음)

5. 原油市場 展望

현재 油價가 인하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GCC 産油國의 일방적인 油價 인하 가능성은 다소 회박하여 OPEC회의의 재개최등을 통한 원만한 방법에 의한 기준油價의 下向調整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油價가 인하되는 경우에 油價인하폭은 유종간 differential을 考慮時는 2\$/B, 現物市場 價格 및 他에너지와의 경쟁관계를 고려시는 4\$/B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기준유가 인하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各國間의 油價 인하 경쟁을 유발 25\$/B 까지도 하락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原油價格은 Market force와 Political force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당분간 Market force가 강하게 작용하여 실질유가는 인하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83년 이후 세계 경기 회복으로 石油수요증가, 최근 유가 하락으로 代替 에너지 개발 지연 또는 취소, 신규유

(表-3) 油種間 價格差 推移(S/B)

	78.12	81.10	82.1	82.3
○油種間 價格差	1.4	4	3	1.5
●基準油價(A/L)	12.7038	34	34	34
●아프리카(B/L)	14.10	38	37	35.5
○基準油價에 대한 油種間 價格差比重(%)	11	12	9	4

註 2」 할인판매 형태

- ① 공공연한 油價引下
- ② 輸出信用期間의 연장(30日 연장시 35¢/B引下 效果)
- ③ 위탁가공무역: 외국에 원유를 위탁가공, 제품판매대금을 인수
- ④ 구상무역: 원유는 공식가, 원유와 교환되는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
- ⑤ 일괄판매: 원유는 공식가 끼워지는 LNG나 석유제품은 크게 낮춰 계산
- ⑥ 원유를 CIF가격으로 판매하고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자 부담.
- ⑦ 석유 회사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하여 공식가 하에서도 적정수준의 이윤보장 방법

註 3」 逆오일쇼크의 내용

- 산유국의 石油輸出收入감소→경제개발計劃의 축소→산유국의 수출정책→세계물황의 가속화
- 石油收入의 감소→石油 잉여 자금의 감소→국제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강화→신용불안
- 석유가격의 하락→대체에너지 개발 의욕의 감퇴

(表-4) O P E C 各國의 産油量 推移

(單位:千배럴/日)

연도별 국별	80	81	82					前年同期比 增加率(%)	生産能力
			9	10	11	1~11			
사우디	10,258	10,175	5,685	5,659	5,617	6,573	-33.8	11,300	
이란	1,480	1,315	2,300	2,500	2,600	1,886	42.2	2,500	
이라크	2,645	900	800	800	800	934	7.4	1,500	
쿠웨이트	1,693	1,150	885	859	917	833	-27.2	2,800	
U A F	1,705	1,510	1,157	1,157	1,157	1,219	-19.1	2,885	
카타르	470	405	287	381	310	330	19.6	650	
베네수엘라	2,240	2,170	1,990	2,160	2,000	1,851	-11.4	2,400	
나이지리아	2,055	1,445	1,170	1,482	1,355	1,302	-7.6	2,400	
리비아	1,790	1,120	1,400	1,700	1,700	1,084	-2.3	2,000	
인도네시아	1,580	1,605	1,300	1,372	1,400	1,340	-16.5	1,600	
알제리	1,105	1,010	800	800	800	692	-15.3	1,100	
가봉	175	150	140	140	140	145	-3.7	200	
에콰도르	210	220	203	220	220	208	-1.7	250	
OPEC 合計	27,406	23,175	18,116	19,230	19,315	18,407	-18.5	31,185	

(資料) Petroleum & Energy Intelligence Weekly, Inc.,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Dec. 6, 1982
 British Petroleum Company,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981
 Financial Times, Feb. 26, 1982

(註) 1) 中立地帶生産量 包含.

(表-5) 自由世界石油需給推移展望

(單位:百万B/D)

年度 区分	1980	1981	1982						1983						1985	1990	2000
			WEFA	P. Eco nomist	PIW	DOE	DRI	OECD	WEFA	P. Eco nomist	PIW	DOE	DRI	OECD			
(需要)	48.9	47.1	40.7	39.8	45.5	45.4	45.1	45.8	42.0	40.0	45.3	45.8	46.2	46.9	48-50	50-56	58-74
先進国	38.0	35.7	29.6	30.2		34.2	34.4	34.5	30.5	30.4		34.4	34.8	34.0	35-36	34-37	33-43
開途国	10.9	11.4	11.1	9.6		11.2	11.2	11.3	11.5	9.6		11.4	11.9	12.0	13-14	16-19	25-29
(供給)	49.6	44.3	39.1	38.9	43.7	43.9	44.3	44.3	41.6	40.3	45.3	46.2	46.1	46.9	48-50	50-52	49-53
OPEC	27.4	23.2	18.4	18.3	19.4	19.9	22.1	20.7	20.6	20.0	20.5	21.7	23.4	23.8	23-26	27-29	24-28
非OPEC	20.6	21.1	19.6	19.6	24.3 ¹⁾	22.8	22.2	23.6	20.1	19.7	24.8 ¹⁾	23.4	22.7	23.1	24	23	25
共産国에서輸入	1.6	1.8	1.1	1.0		1.2			0.9	0.6	-	1.1		1.0	-	-	
在庫變動	0.7	△ 0.9	△ 1.6	△ 0.9	△ 1.8	△ 1.5	△ 0.8	△ 1.5	△ 0.4	0.3	0	0.4	△ 0.1	0			
과부족															△ 0.4	△ 9-21	

(註) 1) 非OPEC의 生産에는 共産圈으로부터의 純輸入도 포함되어 있음.

(資料) The British Petroleum Company p.l.c.,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981
 WEFA, World Economic Outlook, Dec. 1982
 Petroleum Press Bureau Ltd., Petroleum Economist, Oct. 1982
 Petroleum & Energy Intelligence Weekly, Inc.,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Nov. 15, 1982

전 개발활동 저조등으로 80년 후반에 석유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고있다. 만약 油價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70년대 발생한 두차례의 石油危機와는 정반대개념의 逆오일쇼크³⁾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80년대후반의 공급부족 전망을 앞당길 확률도 있다.

(表-6) 油價推移 및 展望(年平均)

전망기관	1980	1981	1982	1983	1985	1990	備考
WEFA	30.87	34.6	33.25	33.40	42.0	-	80년월별 가격기준 81
DRI		34.0	33.03	32.83	39.5	-	
DOE		34	-	-	26-38	35-60	
IEA		34	-	-	28-29	28-45	
캘리포니아大学研究所		34	-	-	25	35-37	

Ⅲ. '83 원유도입 정책방향

1. 82년도 원유수급

82년 원유처리량은 석유제품 소비가 전년대비 0.6% 감소 하였으나, 石油 製品輸入의 증대로 前年對比 3% 감소한 173,044천 배럴에 그쳤으며 또한 원유도입량도 178,369천배럴로 前年對比 2.4% 감소를 시현했다. 82년도에는 中

(表-7) 国別·地域別 原油導入 실적

(單位: 千Bbl)

国 別	80		82	
	점유율 (%)	점유율 (%)	점유율 (%)	점유율 (%)
사우디	104,914	57.4	88,458	49.6
쿠웨이트	38,753	21.2	21,328	12.0
이란	14,496	7.9	22,899	12.8
中 東	161,263	88.2	134,373	75.3
인도네시아	7,489	4.0	15,173	8.5
브르네이	-	-	4,695	2.6
말레이시아	2,301	1.3	2,074	1.2
亞 細 亞	9,790	5.3	21,942	12.3
멕시코	1,752	1.0	4,677	2.6
에콰도르	6,611	3.6	9,123	5.1
中南美기타	10,349	5.2	14,486	8.1
리비아	1,154	0.6	5,868	3.3
아프리카기타	1,467	0.8	7,568	3.3
計	182,816	100	178,369	100

東依存도가 작년의 88%에서 75%로 떨어졌으며, 도입국수는 같은 9개국이나 81년에 도입되었던 베네수엘라가 中斷되고 82년에는 브루네이가 추가되었다.

특히 82년에는 세계시장의 수급 완화를 적극 활용 82년초에는 계약물량을 61.6만B/D에서 49만B/D로 감량하고 불리한 導入條件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는 물량의 감량, 선박용연료구매 의무완화, 미선적시 벌칙 조항의 완화, 쿠웨이트 유조선 사용 의무완

(表-8) 中東依存度 및 原油導入先多邊化推移

	78	79	80	81	82
中東依存度(%)	100	99	97	88	75
메이저	100	88	51	36	27
G-G	-	10	29	30	23
D-D	-	2	20	28	50
導入國數(國)	3	4	5	9	9
	사우디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리비아	브르네이, 베네수엘라, 미도입

(表-9) 原油導入物量 및 金額

년도	物 量 (千Bbl)	金 額 (千달러)		單 位(\$/B)	
		FOB	C&F	FOB	C&F
1964	5,836	9,426	12,507	1.62	2.14
1965	11,170	18,090	23,677	1.62	2.12
1966	14,202	22,810	29,803	1.61	2.10
1967	18,458	28,852	37,809	1.56	2.05
1968	36,409	52,637	70,683	1.45	1.94
1969	55,889	77,621	97,681	1.39	1.75
1970	69,150	95,918	118,916	1.39	1.72
1971	85,425	147,944	178,761	1.73	2.09
1972	92,581	176,320	221,077	1.90	2.29
1973	103,210	253,020	305,158	2.45	2.96
1974	112,703	1,013,522	1,104,833	8.99	9.83
1975	117,795	1,241,214	1,328,152	10.54	11.28
1976	132,407	1,491,011	1,570,003	11.17	11.93
1977	154,548	1,890,104	2,000,075	12.23	12.94
1978	166,532	2,042,764	2,173,680	12.27	13.06
1979	185,513	3,153,352	3,330,508	17.00	17.95
1980	182,861	5,431,424	5,654,191	29.70	30.92
1981	172,816	6,237,384	6,504,165	34.12	35.58
1982	178,346	5,854,300	6,075,324	32.82	34.06

화 등을 한바 있으며, 멕시코는 경질원유인 Inthmus의 比率의 제고, 말레이시아는 아국 수요 패턴에 적합한 Bintulu만의 導入, 인니는 계약 유종은 Handil이나 저점도, 저유동점의 Walio의 도입 등을 하게되었다. 또한 임가공의 추진으로 쌍용과 京仁이 약 천만배럴을 도입하여 정유사의 수익성을 제고시킨 바 있다.

특히 82년에는 저렴한 현물시장을 활용하여 (82년 이전에는 수급부족에 의한 고가의 현물구입이었음.)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 하였다. 이러한 저렴한 현물시장 活用과 불리한 導入條件의 改善을 통하여 物量은 前年對比 2.4% 감소하였으나, 導入대전은 6.6% 감소한 60.8억달러 (C&F 기준)를 기록했다. 즉 비축물량을 제외하고 비교하여 보면 約2.6억달러의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 한것이다.

2. 83년도 原油需給 計劃

83년도 원유수급 計劃은 GNP成長率 7.5%내외 제품의 수·출입을 포함한 수요와 정부비축을 감안할때 수요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175,045천배럴, 도입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180,245천배럴로 전망되며 <表-10>과 같다.

(表-10) 83原油需給計劃

(單位: 千Bbl)

區 分	82	83	前年對比 (%)
수 요	173,044	175,045	1.2
공 급	178,369	180,245	1.1
재 고	17,167	22,367	30.3

3. '83년도 原油導入 政策方向

82年 3月 11日 政府는 세계원유시장의 완화와 油價單一化 합의를 계기로 2차 石油危機 이후 운용해 왔던 原油價 平準化 제도를 폐지 하고, 原油도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原油導入의 自律化를 지향하고 있다. 原油가 국민경제의 동맥으로서의 차지비중과 해외에서의 全量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소요원유의 적기 안정적 공급은 우리에게 주어진 基本 과제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原油導入政策方向은 다음과 같은 施策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原油導入의 自律化

기존공급이 아닌 새로운 原油導入은 精油社의 自本責任確保能力 제고로 직접 精油社가 導入케 할 계획이며, 기존 원유공급계약도 세계 원유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수 있도록 도입형태는 G-G 에서 D-D로 漸進的인 전환을 기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장기안정적 원유 확보측면을 해치지 않는범위내에서 적정규모의 저렴한 현물시장활용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나. 가급적 政策原油導入의 排除

政府는 政策原油의 導入時 파생되는 문제점 즉 原油도입의 경쟁원리에 배치되고, 가격조건이 불리한 原油도입이 미치는 영향 과 국내 유류 수요패턴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도입 원유선택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政策原油의 導入은 가급적 안할 방침이나 국가 전체의 정책판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精油社와의 협의를 통하여 도입하되 이를 극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다. 原油導入先 多邊化的의 계속

도입선 다변화 대상지역이 中東보다 運임이 더 소요되며, 또한 국내석유제품가격 구조의 국제가격 구조와의 乘雜로 인한 손실 발생을 감안하여 原油導入先 다변화 기도를 위한 추가운임, 추가금융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原油導入先多邊化를 점진적으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個 산유국에의 과다의존탈피, 導入量의 多邊化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라. 産油國과의 유대관계지속

1. 2次 石油危機 이후 産油國의 생산 관매권

장악으로 실수요자에 직접판매 경향과 産油國의 자원민족주의에 부응하여 현재 市況은 공급과잉이나 原油의 장기수급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산유국 주요인사의 초청 및 방문의 資源外交를 전개하여 양국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精油社와 민간상사를 통한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등 産油國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심화하여 원유도입국과의 실질관계 강화를 기하여 나가겠다.

마. 石油情報體制的 구축 및 활성화

현재 세계원유시장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전망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세계석유 시장은 예측불허 요

인이 상존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먼저 구득하는가가 세계원유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관건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유관기관(精油社, 민간상사, 유개공, 연구소 등)과 정보의 수집, 교환 분석을 해나갈 계획이며, 또한 국제기구와의 세계 원유시장 동향에 대한 석유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상 개략적으로 향후 原油導入 정책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여 보았지만, 앞으로 원유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가급적 줄이고 정유사 스스로 原油導入을 할수 있도록 行政的인 지원과 지도를 해 나갈 생각이며, 아울러 정유사도 가급적 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

産油國動向

原油價인하 各國에 확산

英國국영석유공사(BNOC)가 北海産 원유 가격을 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언제나 英國과 공동보조를 취해온 노르웨이가 잇달아 北海産 원유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나이지리아 멕시코 리비아의 油價引下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油價引下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聯合(UAE) 등 페르시아灣 대석유수출국가들의 油價引下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분석된다.

BNOC 직원들은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소식통들은 평균 배럴당 33.5달러로 꽤있는 현재의 北海産 원유가격이 2~3.5달러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英國과 노르웨이의 北海産 원유생산량은 각각 하루 2백 20만 배럴 및 50만 배럴에 달하고 있어 非共產세계의 하루생산량 4천 5백만 배

럴중 큰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수주동안 세계 주요 석유회사들과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英國에 油價引下 압력을 가해왔으며 이같은 압력은 지난달의 OPEC(석유수출국기구) 石油相會議가 공동유가전략 마련에 실패한 이래 절정에 달했다.

지난달의 제네바 OPEC 石油相회의에서 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 石油相은 北海産 원유가격이 배럴당 2~3달러 인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단언했었다.

油價정책에 있어서의 主導權을 탈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2개월전부터 公示價格引下를 위한 공작을 꾸며왔으나 英國과 마찬가지로 油價를 인하는 첫번째 국가가 되길 극력 기피해왔다.